

“22대 국회 법안, 차별금지 성격 확산... 표현·종교 자유 위축 우려”

19일 대구서부교회서 차별금지법제정반대 세미나 열려

차별금지법제정반대 및 종교단체해산법 등 악법저지를 위한 대구지역 목회자 성도 시민단체 초청세미나가 19일 대구서부교회에서 열렸다. 기록한방교회 통합국민대회에서 주최했다. 이날 행사에선 최근 국회 발의 법안들을 둘러싼 우려와 함께, 정치와 종교의 관계에 대한 신학적 해석이 제시됐다. 목회자와 성도,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김원평 교수(한동대 석좌)는 “22대 국회 발의 법안 문제점을 주제로 발표하며, 다양한 분야 법안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흐름을 짚었다. 그는 “방송·통신, 교육, 인권, 노동, 문화, 보건, 법사, 행정 등 여러 영역에서 차별금지 요소를 포함한 법안들이 다수 발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표현 규제와 관련해 “혐오표현 금지와 차별금지 확대가 추진되는 가운데,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표현의 자유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어 온라인 정보 규제와 관련된 징벌적 손해배상 및 과징금 제도 역시 과도한 제재로 작용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교육 분야에서는 학생 권리 강화와 교사의 정치 활동 허용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제시됐다. 김 교수는 “교육 현장에서 정치적 중립성이 흔들릴 수 있다”며 “권리 확대와 함께 책임 개념도 균형 있게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인권 정책과 관련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한 확대를 언급하며 “조작과 권한이 강화될 경우 권력 집중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노동 및 성 관련 법안에서 ‘성’ 개념이 확장될 가능성에 대해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까지 포함되는 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가족 및 복지 영역에서는 비혼 출산 허용과 생활동반자법 논의가 언급됐다. 그는 “이러한 제도 변화가 기존 가족 개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이 강의를 듣고 있다. ©대구서부교회

보건 분야에서는 조력종업사와 낙태 관련 입법을 언급하며 “생명윤리와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특히 종교 관련 법안으로는 민법 개정안이 핵심 쟁점으로 제시됐다. 해당 법안에 대해 그는 “종교단체가 정치 활동에 개입했다고 판단될 경우 해산과 재산 국고 귀속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종교의 자유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차별금지법과 유사한 법안들에 대해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포함해

전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징벌적 손해배상과 입증 책임 전환까지 포함하는 구조”라며 “이러한 요소들이 결합될 경우 사회 전반에 대한 통제 수단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대응 방안으로 입법 과정 참여를 강조했다. 그는 “법안은 상임위원회 단계에서 실질적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며 “국회의원에게 문자나 전화로 의견을 전달하고,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입법 과정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진 발제에서는 주요법 목사(자유인

권실천국민행동)가 ‘성경과 정치’를 주제로 신학적 관점에서 정치의 의미를 설명했다.

주목사는 “정치는 국가 권력을 획득·유지·행사하며 국민의 삶을 보장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활동”이라고 정의하며, 성경 역시 정치와 권력의 문제를 중요한 주제로 다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모세와 여호수아, 사사시대 지도자들, 왕정시대의 왕과 선지자 관계를 언급하며 “성경은 권력을 인정하면서도 선지자를 통해 이를 견제하는 구조를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라는 점이 성경적 정치 이해의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정교분리 원칙에 대해서도 그는 “종교를 배제하기 위한 개념이 아니라, 국가와 종교가 서로를 통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라고 설명했다. 미국 수정헌법 제1조를 예로 들며 “국가는 종교를 만들 수 없고, 종교의 자유를 제한해서 안 된다”고 말했다.

또한 중세 교황권과 왕권의 충돌, 1122

년 보름스 협약을 언급하며 정교분리 개념의 역사적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일제강점기 ‘사찰령’과 ‘포교규칙’을 사례로 들며 “종교를 통제하기 위해 정교분리 논리가 왜곡된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는 “당시 ‘종교는 정치에 관여하지 말라’고 하면서도 신사참배를 강요한 것은 명백한 이중 기준”이라고 비판했다.

코로나19 시기 예배 제한 조치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예배 인원 제한과 시설 폐쇄 조치가 신앙의 자유 침해 논란과 함께 형평성 문제를 불러왔다”고 평가했다.

주목사는 “정교분리는 종교를 억압하는 개념이 아니라 국가 권력의 남용을 막기 위한 원칙”이라며 “종교와 정치의 관계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현재 사회적 논쟁을 바라보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이용희 교수(에스더기도운동본부 대표),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엔에스), 홍호수 목사(기록한방교회 통합국민대회 준비위원회 사무총장)가 발제했다. 노형구 기자

“한국교회 위기, 예배 회복이 답”

한국장로교총연합회, 여성 목회자 전진대회 개최 신령한 목회자 사명 강조·성령 충만과 말씀 중심 사역 촉구

한국장로교총연합회(대표회장 이선 목사, 이하 한장총)가 19일 오후 한국기독교회관 조예홀에서 ‘한장총 여성 목회자협의회 사역 전진대회’를 개최했다.

행사는 1부 예배, 2부 사역 전진대회 순으로 진행됐으며 예배는 이선 목사(한장총 장로교여성위원장)의 인도로 드려졌다.

양은화 목사(한장총 공동회장)가 대표기도를 드렸으며 이선 목사가 신령한 목회자(고린도전서 2:15-16)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목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단순한 두려움을 넘어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순종과 헌신으로 나타나며,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은 사명을 감당할 힘과 시간을 더하신다.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삶은 결국 열매 없이 사라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기준 속에서 신앙인은 자신의 삶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 돌아보며, 주어진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삶을 선택해야 한다. 신앙의 모습은 육에 속한 삶, 육신에 머무는 미성숙한 상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신령한 삶으로 구분될 수 있다. 단순한 감정이나 환경에 흔들리는 신앙을 넘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순종하는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하나님과 깊이 연결된 신령한 삶을 살아갈 때,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며 믿음의 여정을 완주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권필수 목사(한장총 공동회장)가 격려사를 전했다. 이어 조세영 목사가 광

고를 전했으며 강대석 목사(한장총 상임회장)가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 순서가 마무리됐다.

이어진 사역 전진대회는 김명준 목사(한장총 회목사)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김영숙 목사(한장총 여성목회자협의회 대표회장)가 대회사를 전했다.

김목사는 “여성 목회자 협의회 사역 전진대회는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과 책임을 다시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한 새로운 출발점으로 의미를 갖는다. 여성 목회자들은 말씀과 기도로 교회를 섬기고 다음 세대를 세우며 상처 입은 영혼을 돌보는 영적 리더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며, 이를 위해 서로를 격려하고 연합하여 더욱 굳건히 서야 한다. 현실의 어려움보다 하나님의 가능성을 바라보며 담대히 나아가길 때, 각자의 사역과 공동체가 새 힘을 얻고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윤호근 목사(화광교회)가 ‘성령 충만 받으라’(레위기 6:9-12)라는 제목으로 강연했다.

윤목사는 “한국교회에 맞이한 가장 큰 위기는 결국 예배의 위기라는 문제의

식이 중심에 놓여 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예배에 있고, 예배가 흔들리면 교회의 본질도 함께 흔들리게 된다. 성도들이 예배의 자리를 점점 가볍게 여기고, 교회보다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할 때 신앙의 기초 역시 약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은 프로그램이나 외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예배의 자리라는 사실을 다시 돌아보게 된다”고 했다.

그는 “성경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을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복으로 보여 준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뒤 처음 주신 복도 결국 하나님과 바르게 관계 맺으며 살아가는 삶과 연결되어 있고, 그 중심에는 예배가 자리하고 있다. 예배는 단지 형식을 갖추는 종교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을 경배하는 삶의 태도다. 그러므로 예배를 회복한다는 것은 단지 교회 출석을 회복하는 차원을 넘어, 삶의 중심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리는 일과 맞닿아 있다”고 했다.

이어 “삶의 위기 앞에서도 성경은 먼저 하나님께 돌아와 예배하라고 말한다. 야곱이 가장 큰 두려움 속에서 뱀엘로 올라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면의 위협을 막아 주셨던 것처럼, 사람의 눈에는 당장 해결이 더 급해 보여도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예배의 자리에서 시작된다. 눈앞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분주히 움직



대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에 임하고 있다. ©최승연 기자

이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이 더 본질적인 해답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결국 문제를 푸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며, 예배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의 자리다”고 했다.

그러면서 “또한 예배의 회복은 말씀과 성령의 회복과도 깊이 연결된다. 말씀 없는 강단은 힘을 잃고, 성령의 불이 꺼진 심령은 점점 차가워진다. 교회의 재단이 무너졌다는 말은 결국 예배와 기도의 불이 식어 버렸다는 뜻이며, 이때 사람은 하나님보다 세상과 물질, 환경에 더 쉽게 흔들리게 된다. 그래서 교회와 목회자가 가장 먼저 붙들어야 할 것은 세상의 방법이나 화려한 기술이 아니라, 말씀 앞에 바로 서고 성령의 역사 안에 머무는 것이다. 거기에서 다시 회개의 은혜가 시작되고,

무너졌던 중심도 새로 세워질 수 있다고 했다.

끝으로 윤목사는 “결국 교회를 살리고 성도를 살리는 길은 다른 데 있지 않다. 십자가를 붙들고, 말씀 앞에 서고, 회개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자리에서 예배가 다시 살아날 때 한국교회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사역의 열매도, 교회의 부흥도, 삶의 회복도 그 토대 위에서 가능해진다. 그러므로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분주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서 예배를 회복하려는 진지한 결단이다”고 했다.

이어 김정현 목사(여성목회자협의회 총무)가 전진 선언문을 낭독했으며 권오삼 목사(한장총 공동회장)의 마무리 기도도 모든 순서가 마무리됐다. 최승연 기자

[특별기고] 존 로스 선교사의 만주선교 방법론 >> 7면

고난주간과 부활절에 추천하는 CCM 앨범 >> 24면

액상 항균/항바이러스/항곰팡이 소재 전문기업 트윈위즈



경남 창원시 진해구 연구단지 1길 16, 4층 ☎ 055-286-9004

도로 / 라텍스



가전/가구 필름



기능성 페인트



라텍스 장갑



도어락/손잡이



차량용 필름/디스플레이



생활용 도로/코팅액

※ 제품의 색상, 외관 및 특성 변화 없이 항균/항바이러스/항곰팡이 기능을 부여할 수 있는 소재